

# 주안예 News InChrist



주.안.예.교.회.뉴.스.레.터.



# 02

Feb. 2020  
Vol.8 No.02

- 지역국장 새해 다짐
- 권사회 신임 회장단
- EM Logos 소식
- 청년부 / 교육부 소식

주안예교회 InChrist Community Church [f](#) [ig](#) ph. 818.363.5887 | 문서국 e-mail: icccnews123@gmail.com | web: icccla.org



코람데오 한어청년부 회원들이 예배 후 함께 음식을 만들며 즐거워하고 있다. <사진: 조혜리 간사>

## ‘Worship & Fellowship’

### ■ 코람데오 주일예배 시작

2020년 1월 26일, 새해 첫 코람데오 예배가 시작되었다. 한달에 한번 드려지던 청년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0년부터 매주 MP채플에서 주일 11시 30분에 드려지게 되었다.

새해 첫 예배만큼 코람데오 청년부가 더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로 먼저 예배를 준비하였고, 새로 온 청년들과 함께 찬양과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며 예배자의 마음

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다.

코람데오 청년부가 매주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과 더욱 더 친밀해지는 시간이 되고, 여러가지 이유로 함께 하지 못했던 청년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예배가 되길 소망한다.

또한, 1월 24일 금요일부터 1월 25일 토요일 오전까지 MP채플에서 락인 행사를 가졌다. 많은 청년들이 참여한 가운데, 금요일 저녁 문수경 권사와 이애술리 집사가 청년들을 위해 준비한 재료로 청년들이

직접 떡볶이와 주먹밥을 만들어 먹었다.

이날 락인은 찬양과 기도로 시작하여 한동수 집사의 진행 속에 게임 시간으로 금요일 밤을 즐겁게 보냈다. 토요일 새벽에는 다함께 새벽예배를 드리며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락인을 통해 청년들이 서로 더 가까워지고 공동체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으며, 그뿐만 아니라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과도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어 감사가 가득했다. <관계 기사: 7면> | 양하민 기자 |

## “귀한 사역 잘 감당케 하옵소서”

### ■ 오승현 목사 안수식



지난 1월 23일에 오승현 전도사의 목사안수 감사예배가 드려졌다. 미주연합 예수교 장로회와 미주 중앙 노회에서 임명한 오승현 목사임직예배가 다수의 목사님과 주안예교회 성도님들의 축복 속에 아름답게 이루어졌다.

최혁 담임목사의 축사 말씀으로는 인생의 늦은 시간에 기쁨 부으신 하나님의 의도와 숨겨진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면 서 주안에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기쁨으로 축하를 드리며 축복하여 주셨다.

답사를 한 오승현 목사는 입을 목사 예복의 무게만큼, 양을 쳐야 하는 책임감과 부족함에도 허물을 감싸 주셨던 주안예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목사로서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고 서원하여 주셨다. | 임용자 기자 |

### ■ 오승현 목사 답사

#### “열심히 사역하는 목사로 최선을”

먼저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권다니엘 총장님 이하 교단 목사님들과 끊임없는 격려로 학교를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신 전요한 목사님 이하 모든 교수님들, 그리고 부족한 저를 늘 응원해 주시고 목사안수를 받는 자리까지 영적으로 인도해 주신 최혁 목사님과 부족함 투성인 저를 늘 사랑해 주시고 잘한다 칭찬을 아끼지 않고 허물을 감싸 주셔서 전도사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믿음을 물려주신 부모님과 우리 자매들, 무엇보다도 저를 공부시켜 주고 전도사가 되게, 그리고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묵묵히 응원해 준 남편과 맛있고 따뜻한 식탁을 포기해준 제니퍼와 동환이에게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목사님들이 들려 주신 귀한 말씀을 늘 간직하면서 지금 시작하는 나의 목사로서의 인생의 시간을 어느 날 돌아 보게 되는 날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역 잘하는 목사가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열심히 하는 목사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정도영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 회장 취임



1975년 이민 사회와 함께 발족한 남가주 한인 장로 협의회의 제 45대 회장으로 주안예교회 시무장로인 정도영 장로가 취임하였다.

1월 26일 주안예교회 벨리채플에서 열린 취임 감사예배에서 최혁 목사는 에베소서 4장 1절~3절을 본문으로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씀으로 장로협의회가 많은 사역보다 먼저 하나됨을 이루도록 권면했다.

정도영 장로는 취임사에서 “한 해동안 겸손과 온유, 오래참음으로 사역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별히 이날 감사예배에는 한국장로회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종식 장로가 참석해 축사를 했다.

| 임용자 기자 |

### ■ 전교인 수련회 '2020 주안에 패밀리'



전교인 수련회 '2020 주안에 패밀리'가 오는 8월 7일부터 8월 9일까지 Forest Home에서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VBS와 ICY 수련회 등 교육부 행사가 함께 열립니다. 이번 여름 휴가는 '주안에 패밀리'에서 함께 합시다. <자세한 내용 추후 공지>

■ 은퇴 감사 예배

##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주석희 목사님과 김복남 시무장로님 은퇴감사 예배가 1월 31일 성도들의 축복 속에 벨리채플에서 열렸다. 두분은 평생 사역의 길을 인도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고 은퇴 후 더욱 교회를 위해 충성, 봉사하기로 다짐했다.



### 주석희 목사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인사 했던 날이 엇그제 같은데 이제에는 은퇴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사역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주안예교회를 마지막 사역지로 섬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부족한 사람을 사용해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사역자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족한 저를 사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이제 다시 시작한다 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생명 다하는 날 까지 복음을 위해 씨앗을 뿌리며 죽도록 충성하려 합니다. 사랑합니다.

### 김복남 장로

할렐루야!!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장로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처음 장로가 되었을 때 무겁고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부여하시는 힘으로 장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주안예교회가 여러가지로 안정되어 가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대로 전교인이 하나되어 움직여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한 제 인생에 가장 멋있고, 복된 시간들 이었음을 고백하며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 은퇴 원로 장로 감사회

은퇴 원로 장로님들 부부를 위한 감사 오찬이 1월 28일 그라나다 힐스 오디세이 식당에서 열렸다.

최혁 담임목사님이 교회를 위해 충성 봉사한 장로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대해 감사했다.

모처럼 한 자리에 모인 장로님들은 답소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 사역국장 새해 다짐

### 소홀함 없도록 기도로 준비

김경배 국장(벨리 예배국)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찾아뵙기 위해 매주 같은 시간에 모여 그뿐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며, 말씀으로 은혜를 체험하는 모임이 신령한 예배일인데, 누가 감이 이 예배국 사역을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새해 2020년도에는, 성도님들이 더욱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믿기에 평안합니다. 예배국 헌신자들과 함께 기도로 준비하여,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잘 하겠습니다. 더욱 잘 섬기며 보다 겸손해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로 협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하나님과의 만남에 초점을

오찬국 국장(MP 예배국) 우리의 삶 가운데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묵상하면서 지내기는 하지만 다른 일에 방해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온전히 만나는 시간은 예배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찬양, 감사, 회개, 기도, 말씀, 이 모든 행위가 예배시간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행해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소중한 예배를 위한 사역인 예배국을 섬기게 하심을, 두렵고 겸허한 마음으로 받으려 합니다. 쾌적하고, 은혜로운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진심어린 기도와, 철저한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많은 기도로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성실하게 예수님 섬기는 자세로

김영희 국장(MP 봉사국) 2020년도 하나님께서 섬기는 일에 쓰시겠다고 기회를 주시면서 부족하고 자격없는 나를(천국 대사관 직원) 봉사국장으로 불러주셨다.



이 기회를 주시지 않아도 주님께서 베풀어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당연히 해야할 일이지만... 이 말씀을 주셨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줄 앞이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골로새서 3장23-24) 참 쉽지 않은 말씀이다.

어떤 일든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 하고 온 힘을 다 해서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해야한다는 말씀이다. 마음으로 부터 우리나라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순종하는 것. 왜 그렇게 해야하나?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 주안에서 마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봉사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오직 주를 두려워 하는 마음으로 해야하고 주께 하듯 해야하며 주실 상을 바라보고 해야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자세로 해야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에 눈가림받지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섬기길 원하신다. 내 삶에 기준을 주 예수님으로 삼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맡겨주신 자리에서 소중함을 깨닫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봉사가 되기를... 그리고 (봉사국)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 섬기는 일에 뜻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환영하며 다 오셔서 함께 참여 해주시기를 성령님께서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본다.

### 따뜻한 마음 나누도록 뒷바라지

노재덕 국장(벨리 봉사국) 무엇보다 먼저 새로운 각오와 계획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께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따르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저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갖추신 수많은 책임자들이 있음에도 그중 가장 모자란 제가 이 일을 맡게 되어서 무거운 책임과 부담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결정이 저

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를 따릅니다.

지난 2년간 봉사국에 있으면서 배운 것이라고는(?) 설겅이와 바닥청소, 식기 정리 정도 였는데 이번에 봉사국장을 끝내면 수많은 요리 기법을 전수 받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교회에 많은 부서가 다 중요하지만 주방 또한 막중한 사역을 맡은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음식을 나누는 친교의 시간을 통해 음식과 함께 마음을 또한 나누는 시간이야말로 형제간의 사랑을 서로 확인하는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돌아가시기전 제자들을 교회당에 불러 마지막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며 마음에 담아두신 마지막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며 그들과 공생에 마지막 대화를 하시는 순간들입니다. 이렇듯 식사서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며 서로에게 더 다가갈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라 믿습니다.

우리 봉사국은 믿음으로 한 가족이 된 여러분들께 한 가족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기를 다짐합니다. 가끔 부족하고 실수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음을 기억해주시고 많은 이해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 밸리채플 주안에만남

## ‘교회에서 필요한 곳 찾아 청지기처럼 묵묵히 봉사’

이현보 회장(밸리 안수집사회) 부족한 저에게 중임을 맡겨주신 하나님과 안수집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에는 모든 집사님들과 함께 맡겨주신 일들을 기쁨으로 충실히 행하며 나아가는, 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 묵묵히 일하며 전진하는, 참된 청지기 안수집사회가 되도록 노력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뭉쳐 서로 도와주며 격려하고 사랑하는 안수집사회가 되도록 기도하며 기원합니다. 교회와 온 교인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월 25일 밸리채플 안수집사회 신년모임에서 이현보 회장이 봉사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 권사회 신임 회장들 한마디

**이복희 회장(밸리 2권사회)**  
주안예교회의 질서와 목회 방침에 따라 순종하며 모든 권사님들과 화목하고 도우며 또 열심히 기도하며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시는 말씀을 삶으로 순종하여 변화되는 권사회, 셋째 우리가 속해있는 모든 환경속에서 믿음의 분이되는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권사들이 되기를 기도제목으로 올려드리며 기도로 함께 응원해 주세요.

님 과 협력하여 더욱 더 겸손하고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옥희 회장(MP 1권사회)**  
권사회 회장의 직임을 감당하기에 어려운 상황과 현실이지만 그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기에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권사님들의 마음과 생각속에 함께하시어 주안예교회를 위해 동역케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올해 우리 권사회는 첫째 모이기에 힘쓰며, 둘째 매주 주



**최애슬리 회장(MP 2권사회)**  
내게 주어진 사명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배미경 회장(밸리 3권사회)**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지혜주시길 하나님께 기도하며 많이 부족하지만 1권사회 회장님, 2권사회 회장



**김정자 회장(밸리 1권사회)**  
은퇴권사 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제1권사회 회장으로 섬기게 허락하신 하나님과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제1권사회는 은퇴한 권사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에 나서지 않고 뒤에서 도와주고 격려하려 합니다. 또한 연로하신 분이 많아서 만일 교회에 못 오시면 심방이나 중보기도를 통하여 교제를 할려고합니다. 뿐만아니라, 주안예교회 기도의 어머니로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위로하는 화목한 권사회가 되는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 ■ MP 1권사회 신년모임

1월 12일 오후 4시 MP채플 카페에서는, 제1권사회의 1월 월례회와 더불어서 2020년 신년모임이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특별히 새롭게 구성된 임원진들이 회원권사님들께 손수 마련한 음식을 대접해 드리면서 이번 한해를 열심히 섬기겠다는 다짐과 소망을 엿 보이기도 한 뜻깊은 시간이었다.

회장으로 수고해 주실 김옥희 권사님께서 권사회가 꼭 구해야 할 세 가지의 기도제목과 아울러서 한 해 동안 권사회를 지탱해 나갈 목표를 위와 같이 정하시고 무엇보다도 서로 하나가 되는데 최선을 다 하시겠다는 포부를 밝히셨다. | 오희경 기자 |



■ IC Kidz 예배

수화로 하나님 찬양



1월 5일(주일) MP 키즈예배실, '사랑합니다~나의 예수님~'의 잔잔한 찬양에 맞춰 이지혜 선생이 가르치는 '수화(sign language)'를 고사리 손으로 열심히 따라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 진지하다 못해 경건하다.

뒤에서 같이 하는 선생들의 눈가가 촉촉, 지혜선생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찬양은 입으로 부르는 그 어느 찬양보다 아름다웠다.

많은 사람들이 수화는 세계공통언어라는 인식이 있지만, 이는 잘못된 인식이며, 우리(비장애인)가 영어를 배우듯이 수화도 나라마다 표현방식이 다 다르고, 심지어는 미국안에서도 아프리카계(흑인)와 백인들 수화가 다르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 알게 되었다. | 이성은 기자 |

■ 주안에 TUNE 개강

예배자 양성 음악 재능교실

주안에교회 예배자 양성 프로그램인 주안에 Tune (이하 IC Tune)이 2월 22일(토)에 시작한다.

IC Tune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목소리와 악기라는 재능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으로 개인의 재능을 개발함과 동시에 예배자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프로그램이다.

기타, 드럼, 키보드, 색소폰, 바이올린, 보컬 등 각 분야 별 전문가들이 토요일 오전에 12시부터 49세까지의 수강생들을 그룹으로 가르치게 되며, 일정한 수준에 오른 수강생들은 학기말 발표회를 통해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기회를 갖게 될 예정이다.

IC Tune 관계자는 “시편 150편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라는 말씀을 따라 더욱 더 많은 성도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문의: 이케이시 목사 (213) 235-7055> | 이요셉 전도사 |

**ICTUNE**  
INCHRIST MUSIC ACADEMY  
2/22/20 - 5/09/20  
10am to 12pm Every Saturday  
Tuition: \$180(1 Class)/\$360(2 Class)  
Ages: 12 - 49  
At ICCC(Valley Chapel)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Classes:  
Keyboard, Guitar, Drum, Violin,  
Vocal, Clarinet, Saxophone, Ukulele, Trumpet  
Contact:  
Pastor Casey Lee (213)235-7055

■ 밸리채플 ICY 학부모회

"부모님 관심과 서포트 신앙 교육의 필수"

새해를 맞아 밸리 ICY 학부모님 모임이 1월 19일 주일예배 후에 케이스 목사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케이스 목사님은 주안에교회가 시작하면서 서부터 교육부 디렉터로 섬겨 주셨는데, 훈련의 기간을 갖고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쁘다는 인사말로 시작 하셨다.

중,고등부 학생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는 학부모님의 관심과 서포트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시면서, 특별히 금요일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하셨다. 아이들이 예배에 나와야 준비하신 프로그램과 성경공부 및 교제를 통해 아이들에게 유익을 준다고 말씀하셨고, 아이들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parenting tip 도 알려주셨다. 아이들에게는 긍정적인 언어로 아이들의 기를 세워줄 것과 명령어가 아닌 옵션을 주는 제안으로 부모님의 가이드라인 안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 주라고 조언해 주셨다.



케이스 목사님은 아이들과 부모님을 위해 섬길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면서, 아이들과 부모님과의 만남은 물론이고, 필요하다면, 아이의 학교 선생님이나 카운슬러와도 만날 수 있다면서 언제든지 연락을 달라고 말씀하셨다. 모인 부모님들의 마음을 시원하

게 해 주시면서 힘차게 시작하시는 케이스 목사님의 중,고등부 사역이 기대가 된다. <Pastor Casey Lee/ e-mail: casey-lee239@gmail.com, Mobile: (213) 235-7055>

| 류명수 기자 |

■ 코람데오 소식



■ 하룻밤새 더 친밀... 락인은 즐거워

코람데오 청년부 청년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고 친교를 나누는 락인이 1월 24일 MP채플에서 있었다. 함께 요리도 하고 밤을 새워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 한층 친밀해지고 공동체의 소중함을 느꼈다.

■ 코람데오 예배 소감

설렘과 기대, 풍성한 은혜 경험

설렘, 코람데오 예배를 한 단어로 표현하라면 나에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이다. 하나님께서 청년들에게 허락해주신 예배의 시간을 통해 각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 말씀, 뜻, 은혜가 무엇일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준비하기 시작했을 때, 예배에 필요한 부분들 마다 우리 청년들을 한 마음으로 모아 주시며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

청년들만의 예배를 하나부터 열까지 고민하며 준비한 시간을 통해 예배의 소중함을, 갈급함을, 또 그 시간을 사모할 수 밖에 없게 되는 마음을 가르쳐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린다.



구원혜 간사

하나님과 더 가까이... 회복의 시간

청년부 예배가 시작되는 과정에서 찬양팀을 같이 하자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과 동시에 조금 귀찮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버리고 청년부 예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어떤 방법으로도 봉사하고 싶어 찬양팀을 같이 하겠다고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과 고등학교 시절 때 친구들과 함께 찬양팀 연습을 하면서 하나님께 한걸음씩 다가가는 기억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때 만났던 하나님의 관계를 코람데오 예배와 찬양팀을 통해 회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권성재 성도



■ 새해 자녀 축복기도- 송구영신특새 마지막날인 1월 4일 새벽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린 후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나기를 축복하는 기도시간을 가졌다.

■ EM Logos 예배 소감



*A Brand New  
Spiritual Journey*

■ Movie Review/  
'I Still Believe' March 20th 2020

True life story of Christian music mega star Jeremy Camp.

Jeremy's remarkable journey of love and loss proves there is always hope in the midst of tragedy and that faith tested is the only faith worth sharing. It somewhat reminds me of Job, in the bible, who remains faithful despite his most unfortunate circumstances. Check it out and share your thoughts with us! | Simon Cho 기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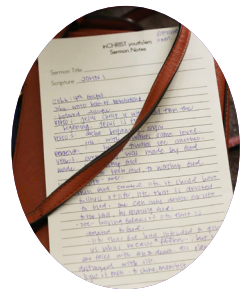
**Paul Yang (Leader for Logos)**

I grew up in a third-generation Christian household; both parents were, and still are, devout servants of the Lord, giving their time and resources consistently and selflessly for the Kingdom. So needless to say, throughout various parts of my life, I've had my spiritual mountains and valleys, and finding the right place and group to be adequately spiritually fed has been challenging. But, coming into ICCS three years ago, and more specifically the EM Logos ministry, I knew right away that this was going to be a place where I can grow. And I stand here today as a proud testament that yes, God cares for and raises His children. Whether it's through the Christ-centered worship, where everything from song-choice to group Bible study is methodically thought out and done through prayer, or the service that we do for our community as a group, I experience the Holy Spirit week in and week out. I have come to realize that, as long as I'm putting in my effort and giving what is expected of me, I will receive the same, and beyond, from my leaders



and fellow brothers and sisters.

Furthermore, I find so much solace and encouragement knowing that, when I walk in through the glass doors, I can be completely and unapologetically me. I don't have to put on a mask, I don't have to be "Mr. Perfect Paul," and I certainly can ask any questions that I have, no matter how controversial or difficult. Even as a leader, I have the assurance that, in the end, I am just as much a sheep belonging to the Shepherd as anyone else, and we are being led by His word. I can talk to any of the pastors regarding any of my problems, as well as celebrations; it is my greatest joy being able to share all the ways in which God has overflowingly blessed me, and a comfort like none other knowing I have people who pray for me. I visibly see myself growing each time I'm with Logos, and I don't think there's anything more that I could ever want or ask for from a spiritual family such as this!





■ EM Logos 예배 소감



*Chaper in our  
to know God*

**Brenda Cho (EM Logos New Comer)**



Hello, my name is Brenda Cho. I grew up going to church with my older sister and cousins up until high school. Unfortunately, when I went away to college, I stopped attending church altogether. I drifted away from God and did not even go to church when I was home for the holidays. Fast forward almost eight years and here I am attending EM LOGOS services.

I believe attending EM LOGOS services has been impacting my life, without a doubt in a positive way. This is the first time I have been attending services on my own - not because I was tagging along with my sister, but because I really desire to learn and grow spiritually. Coming into Logos, I felt an immediate sense of openness and belonging, as our Pastor and fellow EM members have been very welcoming. Though we may be a small group, I think that everyone is respectful of and cares for each other and this allows for a safe space for everyone to share and ask questions.

At first, it felt a bit daunting to join LOGOS, because my spiritual knowledge was quite limited. However, I feel that I am really growing here because my Pastor is a great and passionate leader. Her sermons focus and really dives into the scripture, rather than covering the message on a superficial level. She thoroughly explains verse by verse the meaning and background, providing us with a solid understanding. Our Saturday brunches are also a great time to spend together

and learn more about God. Currently, we are learning the meaning of worship - something that I never really stopped to think about but is so fundamentally important. I really appreciate this group and want to continue to spiritually grow and do life together.

**Grace Choi (EM Logos New Comer)**



Hello, my name is Grace Choi and I currently attend Art Center College of Design studying product design.

Throughout my years in college, my faith and trust went downhill because I wanted to live my life how I wanted to but I ended up in depression and uncertainty. I was born and raised in a Christian household so I attended church my whole life, but as I entered college it was hard to keep the faith. I was unhappy with my life and last year in fall 2019 I remember praying to God I really wanted to change my life.

I had a previous home church I grew up during my high school years where my parents attend but due to my heavy schedule it was hard to keep up with my group members who were a little older working and their activities. God has spoken to me to go back to church during my term off (spring) and I made a big decision of finding another church I can grow in and have a bond with other college students. This prayer of deciding to find another church was a process from praying and really listening to God's word because right when my term ended I drove out somewhere

in the valley near my home and ended up finding this Korean American church. I first thought about going to shepherd church but as I passed by reading Korean words I made a left turn and found this church.

The craziest thing was when I came, the church announced they will be launching a college ministry with college students so this intrigued me. I wanted a fresh start with my life so the fact this church was launching a college ministry felt like a fresh start as well so I became excited.

My transition into EM LOGOS was such a blessing because I prayed if this was the church for me to grow and I got a strong gut feeling after attending the EM Praise night service that same week. As I continued to come out to this church I got to know the other members more, talking with my Pastor about my life, and it's just nice that there's no shame in wanting to re-learn about God. I don't know how to explain it but there's this atmosphere of wanting to keep coming out to this church and grow. I feel comfortable and reassured that as I go back to school during the summer term I will still have a bond with my fellow LOGOS members and our Pastor because it feels like home now.

It's been a good month that surprisingly went by fast but I already feel like I'm growing as a person, a daughter of God, and a lot of amazing changes have occurred in my life. It's funny how it's been a month but by obeying God I found my way in this church and I'm sprouting as if a couple of months went by. Truly thankful and blessed to be here.

■ 교역자 소개/ 박민재 목사, 민창식 전도사

말씀의 은혜... 먼길도 잊고 달려와

박민재 목사 주안예교회 최혁 목사님과 당회원 이하 모든 성도님들께 가슴가득 고마운 마음이 차 오릅니다. 이른 비와 늦은비를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뜨겁게 경험하는 중입니다.



매 주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 그 말씀 사모하여 먼 길인 줄도 모르고 다니다보니 이런 사역을 허락해 주시네요. 말씀 자가 구할 것은 충성! 이라 하셨으니 최선을 다해 진실하게 충성되게 섬기고자 합니다.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

민창식 전도사 부족한 저를 주안에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안예교회 오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으로 섬기며 믿음과 생활의 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떠한 환란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저를 사역 동역자로 선정해주신 인사위원 장로님들과 최혁 목사님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 마더와이즈 개강



건강한 관계... 성경에 답이 있어요

마더와이즈는 성경공부를 통해 성경적 여성관이 회복/성장되는 계기로 여성들의 풍성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지침과 실제적 도움을 주고자 하는 공동체입니다.

성경적 결혼관을 되집어보며, 부부/ 자녀/ 사회 안에서의 건강한 관계를 만들고 자녀를 경건하게 양육하는데 필요한 답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가정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 시대에서 말씀가운데 맺어진 공동체를 통해 서로 준비시키고, 연습하며, 교육하고 격려함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개인의 삶과 가정이 변화를 이루어 내며 건강히 세워지도록 하는 것을 사명으로 갖습니다.

1월말부터 함께 시작한 멤버들이 말씀을 사모하며 내면에 사랑을 품어 변화된 삶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첫 모임을 가지게 되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적절한 구성인원을 5-6명을 추천하는데, 벨리에서 6분, MP에서 4분이 함께 동참하게 되어 감사하고 주의 일하심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1월 28일 시작된 이번 클래스는 벨리 채플 화요일 10시, MP채플 금요일 10시반 7주간 진행 됩니다.

| 이니콜 전도사 |

■ 교역자 소개/ Casey Lee 목사

*I am so honored and blessed*

Hello everyone! It is incredible to be back serving at InChrist Community Church after 4 years of training and studying. I am so honored and blessed to see



all the familiar faces. Lots of hugs and greetings were exchanged. I feel like I am back where I belong with my family in Christ.

I want to truly thank God for His faithfulness in my life and in the lives of our members. I can see God's amazing love and grace in our church leadership. We have all come a long way to be here and now. I am excited to see what God has in His agenda for all of us. I will do my best to be faithful to my calling for His body. Thank you all for your love and support in the same.

4년간의 훈련과 배움의 시간을 갖고 다시 주안예교회로 돌아와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게 되어 영광스럽습니다. 우리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과정을 지나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며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나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해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독일보** LA

**주안예교회 최혁 목사 명예훼손 승소 판결 주대법원서 확정**

노스리지에 소재한 주안예교회 담임 최혁 목사가 언론매체를 통해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주안예교회는 최혁 목사와 주안예교회에 관한 허위 보도를 이유로 뉴스M닷컴과 미주 뉴스앤조이, 소유주인 최병인 씨, 편집인 김기대 목사, 기자인 양재영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민사소송과 관련해 2017년 9월 13일 LA 카운티 수피리얼 코트 배심원 재판에서 승소, 당시 법원은 뉴스M닷컴과 미주 뉴스앤조이에 인터넷상에 게재한 주안예교회 및 최혁 목사의 관련 기사 12건을 모두 삭제할 것과 명예 훼손으로 인해 입은 피해 배상금 97만 5천1달러(약 11억5천만원)와 법정 비용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뉴스M닷컴과 미주뉴스앤조이, 최병인 씨, 김기대 목사, 양재영 목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2019년 4월 24일 캘리포니아 주 항소심에서 기각된데 이어 2019년 7월 24일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에서 기각됨으로 재판 결과가 확정됐다.

주안예교회는 뉴스M닷컴과 미주뉴스앤조

이 소송 경위에 대해 설명하면서 "2014년 6월부터 최혁 목사와 주안예교회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기사를 인터넷에 게재했고 이후 주안예교회가 수차례 보도 취소와 정정을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끊임 없이 교회와 담임목사를 공격하는 허위 기사를 올려 교회와 성도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됐다"며 "교회가 교인을 상대로 소송을 한 것이 아니라, 외부 세력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의 신앙을 해치는 불법행위에 대해 미국 법원의 도움을 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주안예교회는 또 "명예훼손적인 허위 기사로 인해 진위여부에 관계없이 교회와 담임목사에 대한 불신과 의혹을 가지고 교회를 떠난 분들이 많았다"며 "지금까지도 타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들조차 재판결과나 정확한 내용도 확인해보지 않고 기사 내용이 마치 사실인양 주장하고 있다"라고 그동안 교회가 입은 어려움을 토로했다.

주안예교회는 최혁 목사가 이전에 담임하던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한국으로 떠난 이유에 대해서는 "최혁 목

사님은 당시 당회의 대표되는 서기 장로에게 사임 이유를 충분히 설명한 후 사직서를 냈고, 소속된 총회와 노회에도 사직서를 우편으로 보냈었다"며 "만약 인사를 드리고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면 당시 교회는 더 큰 어려움과 혼란을 만나게 되었을 것이며,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의 빠른 안정을 위해 어떤 변명도 하지 않는 것이 목회자의 윤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최혁 목사는 "결과적으로는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아프게하고 심려를 끼친점에 늘 죄송스럽고 가슴 아파하고 있다"고 심경을 밝혔다.

한편 주안예교회는 피해 배상금 97만 5천1달러를 받아 전액을 공의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피해 배상금을 지불할 최병인 씨와 양재영 목사는 개인 파산 신청을 했고, 김기대 목사의 명의로 된 재산을 찾기가 어려워 피해 배상금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2020년 1월 28일 기독일보 김동욱 기자〉

■ **목장 소식**

**예수님 피로 한가족... 따뜻함 넘쳐**

MP 채플 교육부 목장 1월 19일(주일) 오후 3시 30분, 키즈룸에 모여 계시는 분들이 있다. 바로 MP채플 제1교육부 목장(일명 담쟁이닝쿨 목장)의 목자와 목원들이다. 심규남 목자는 인터뷰에서 키즈에서 교사로 스태프로 섬기고 있는 훌륭한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목원들이며, 누구든지 키즈에서 섬기시면 언제든지 목장문은 오픈되어 있다고 했다. 남이 아닌 예수의 피로 하나된 가족이라 가족보다 더 따뜻하고 정이 넘친다고 소개하며 바램으로는 더 많은 분들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1부예배부터 키즈봉사 까지 고되고 긴 하루였음에도 섬김의 본이 되는 그 분들의 얼굴은 환하게 빛나 보였다.

| 이성은 기자 |



MP 채플 5목장 신년모임 (목자 이광영 안수 집사/임혜신 권사)

모임 일시: 2020년 1월 12일 오후 3시 30분/ 모임 곳: 뉴서울호텔 식당/ 나눔: 2020년 기도의 축복을 받도록 말씀을 늘 가까이하자. 말씀을 나눔(마 6장 9절외).

■ 포토에세이

구닥다리의 소중함

구닥다리는 여러 해 묵어 낡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사물, 생각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새 물건만 나오면 밤새 줄을 서서라도 꼭 사야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나처럼 오래된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요즘엔 클래식 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복고풍 처럼 살아나는 물건들이 있다.

예를 들어 유리병에 담긴 코카콜라, Canon 5D 카메라, 전축 판 등이 있다. 사라질 것 같았는데 다시 돌아온 물건들이다.



이 사진은 오래된 전축판이다. 한때 CD에 눌러 구닥다리가 된 적이 있었다. 나도 가지고 있던 모든 LP판들을 CD로 바꾼 사람들 중 하나다. LP판만의 특유의 음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요즘 새로 판들이 나오기도 한다. 오래됐다고 다 구닥다리는 아니다.

2700년이 넘는 성경책은 아직도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우리한테 아주 유익한 책이다. 구닥다리로 귀중한 것들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껴본다.

| 최호기 기자 |

■ 성경 속 지명

모리아(Moriah) 를 기억하자

모리 (보이다) 아 (하나님) 하나님 보시다, 보여 주다



가나안 땅 - 모리아 - 여호와 이레의 땅 - 여호와의 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을 위해 준비하신 땅 모리아는.. 아브라함이 살던 브엘세바에서 삼일 길,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아주었던 곳, 이삭을 대신해 수양이 제물로 드려진 곳, 다윗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7만명이 죽었을 때, 그 재앙을 멈췄던 곳, 오르난의 타작마당,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땅,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번제물로 드려진 제단, 갈보리 언덕, 해골 골짜기.

즉, 우리의 구원을 위해 준비하신 땅!



예배시간 및 교회 위치 안내

주일 예배

밸리채플/ 1부 오전 8:00, 2부 10:00  
MP채플/ 1부 오전 10:00, 2부 오후 1:00

주중 예배

수요일예배/ 저녁 7:45 MP채플  
금요일예배/ 저녁 7:30 밸리채플

새벽 예배

밸리채플/ 새벽 5:30(월-금), 6:00(토)  
MP채플/ 새벽 5:30(월-금), 6:00(토)

교육부 예배시간(교회학교)

밸리채플/ 주일 오전 10:00, 수 저녁 7:45  
MP채플/ 주일 오전 11:30, 금 저녁 7:45

ICY중고등부&영어청년부

밸리채플/ 주일 오후 1:30, MP채플/ 주일 오전 10:00

Coram Deo(한어청년부)

밸리채플/ 주일 오전 10:00, MP채플/ 주일 오후 1:00

밸리채플 Valley Chapel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MP채플 임시예배처소 MP Chapel

333 S. Garfield Ave. Monterey Park, CA 91754

“주안에” 2020년 3월호 원고 모집

‘주안에’는 교우 모두가 참여하여 만드는 우리교회 뉴스레터입니다. 목장, 사역팀 소식을 비롯, 간증과 일상의 소중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많이 보내주세요. icccnews123@gmail.com

발행처: 주안에교회 문서사역국

문서사역국 명단: 오희경(국장), 나형철, 류명수, 민유선, 양하민, 이성은, 이예스더, 임용자, 조 사이먼, 조용대(기자)

양영, 최호기(사진) 편집디자인: 김윤영